

# 광주 남구, 군분로 야시장 12만여명 찾았다

### 9월 한달 동안 4차례 진행, 평균 3만여명 방문 방문객 33.2% 외지인, 총소비액 8억 1,370만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 무등시장 일원에서 지난 9월에 열린 군분로 토요일 야시장 축제에 전국 각지에서 12만여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주변 상권의 소비 유입 효과도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남구는 24일 “군분로 토요일 야시장 축제의 방문객 특성 및 소비 규모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동 통신사 SKT의 이동 인구나 신한카드의 소비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축제 기간 방문객은 11만 8,677명이었고, 총소비액은 8억 1,370만원 가량이었”고 밝혔다.

세부 결과를 보면 군분로 토요일 야시장은 지난 9월 6일부터 27일까지 총 4차례 열렸는데, 1회당 평균 방문객은 2만 9,669명으로 나타났다.

방문객이 가장 많은 날은 양궁 국가대

표 기보배 선수의 사인회가 열린 1회 야시장으로, 3만 5,720명이 방문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사인회가 시작된 오후 8시 무렵 방문객은 1만 3,362명에 달해 당일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회차부터 4회차 야시장은 약천후 영향으로 방문객 수가 감소해 아쉬움을 더했다.

방문객 연령별로는 50대가 2만 669명(17.4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60대 2만 486명(17.26%)과 40대 1만 9,989명(16.84%), 10대 이하 1만 7,109명(14.42%) 순으로 나타났다.

방문객들이 축제 기간 소비한 금액은 8억 1,370만원으로 파악됐다.

야시장 1회당 평균 소비액은 1억 6,274만원 가량이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 평균 소비 금액을 각각 비교하면 토요일 평균



소비액은 2억 300만원으로 일요일 9,200만원보다 2.2배 많았다.

또 업종별 매출을 보면 미용과 가정생활·서비스 업종의 소비가 크게 증가했는데, 특히 정육과 농수산물 매출 증가세는 토요일 야시장이 당일 외식 수요 뿐만 아니라 주말 장보기와 연계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거두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밖에 거주지별 방문객 현황으로는 남구 주민 비중이 66.71%로 가장 많았고, 인

접 지역인 서구와 북구, 광산구를 비롯해 나주, 화순 등지 방문객은 30.97%이었다. 전라북도와 경기도, 서울에서 온 방문객은 2.23%를 차지했다.

남구 관계자는 “군분로 토요일 야시장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효과가 확인된 만큼 내년에 야시장 준비를 철저히 해 광주를 대표하는 토요일 야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채일 기자

## 북구, 대설·한파 대응 ‘총력’...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종합 추진 계획 실시

### 제설 장비·자재 확보, 주요 도로 제설 우선순위 설정 등 사전 대비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다가올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 태세를 갖추고 주민 안전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24일 북구에 따르면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종합 추진계획’이 본격 시행된다. 올해 계획은 ‘현장중심 사전대비 체계 구축으로 주민불편 최소화’를 목표로 수립됐다.

방재기상정보시스템과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등을 활용해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설·한파 특보 발령 시 상황에 따라 5단계로 구분된 비상근무체계를 즉각 가동한다.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는 인접 지자체 및 군부대와 구축된 협조 체계를 통해 장비·인력·자재 등을 상호 지원하고 북부소방서, 북부경찰서, 한국전력공사, 해양에너지 등 유관 기관과 기능별 T/F를 구성 및 운영한다.

폭설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151.6km 길이의 111개 주요 도로

를 우선 제설 구역으로 지정하고 폭설 시 자동연수분사장치, 덤프트럭, 습염식 살포기 등 제설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한다.

민간장비업체와 협약을 통해 굴삭기 158대, 덤프트럭 77대, 로더 및 그레이더 44대 등을 확보해 제설 장비가 부족해질 수 있는 상황에도 대비했다.

준비된 691톤의 소금과 88톤의 친환경 제설제, 1만 개의 모래주머니는 27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돼 결빙 취약지 곳곳에 살포된다. /송현근 기자

주민들이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한파 저감 시설 101곳, 한파 쉼터 403곳을 운영하고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는 난방용품 지원을 비롯해 재난도우미가 수시로 안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비닐하우스, 축사 점검 등 농·축산 피해 예방 대책도 병행되며 주민밀착형 대설·한파 행동 요령 홍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자연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선제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겨울철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 전남도, 함평만 해안관광 일주도로 건설 착수

### 월천~석창 지방도 확포장 착공... 함평 미래비전 실현 첫걸음

전라남도는 24일 함평 순불면 일원에서 ‘월천~석창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함평만 해안관광 일주도로 건설에 착수했다.

착공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상익 함평군수, 모정환 전남도의회 의원, 이남호 함평군의회 의장,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축선사업 실현을 축하했다.

전남도와 함평군은 2023년 9월,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서남권 대도약을 위한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을 발표했다. 이번 착공한 ‘월천~석창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이 비전을 실현하는 첫 번째 도로사업으로 총 3.8km 구간이 517억 원이 투입되며, 2031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함평만 해양관광 일주도로는 총 20.5km로, 그중 5.1km는 이미 개통돼

사용 중이며, 11.6km는 함평군에서 공사와 설계가 진행 중이다. 이번 착공한 3.8km 구간이 신규 개설되면 서해안의 아름다운 갯벌과 환상적인 낙조, 넓게 펼쳐진 함평만을 만끽할 수 있다.

또한 돌머리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원전 재난 시 중요한 피난도로 역할을 담당하며 주민 삶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지사는 “불편한 생활 여건에서도 묵묵히 지역을 지켜온 순불면 주민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함평군민의 교통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염성호 기자

## 서구 통합돌봄 선도모델 주목

### 원스톱서비스·재택의료센터 등... 성과공유회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24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7년의 돌봄, 함께한 서구’를 주제로 통합돌봄 성과공유회를 열고 그동안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를 공유했다. 서구는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통합돌봄국’을 신설하고 의료·복지·주거·기술을 결합한 다양한 돌봄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분야에서 모범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서구는 ▲전환 한 통으로 접수부터 상담, 처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24시간 통합돌봄’ 운영을 비롯해 ▲전국 최초 재택의료센터 개소 ▲공공 의료돌봄 모델 구축 ▲75세 이상 예방형의 무방문 ▲스마트돌봄정보센터 설치·운영 등 지역 특성에 맞춘 통합돌봄 혁신 정책을 선보이며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문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번 공유회는 통합돌봄협의체, 서비스 수행기관, 협력기관 등 광역계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발표 등을 통한 성과 공유, 향후 과제 발표, 감사 엽서 만들기

등이 진행됐다.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은 발표에서 “광주 서구는 전국 통합돌봄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중 가장 선도적인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며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정책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한 의미 있는 사례다”고 평가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공유회는 지난 7년간 서구가 이룬 통합돌봄의 변화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돌봄 체계를 더욱 강화해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AI 지능형 통합돌봄케어모델, 고품자 스마트케어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연이어 선정되며 ‘통합돌봄 1번지’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박석우 기자

## 1면에서 이어짐

현장에서는 “재정 어려움 속에서 광주시가 대학에 22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글로벌대학 선정되면 학사 운영 달라질 것 같은데 수업이 어떻게 바뀌는지, 26학년 후배들이 입학하면 달라지는 점은?”, “AI에 진심인 전남대 모델이 광주 인재육성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등 다양한 질문이 나왔다.

비전선언문에는 ▲인공지능과 웨이징 특화인재 양성 통한 미래 선도 ▲지역·대학·산업의 상생발전 혁신 생태계 구축 ▲글로벌 허브 중심지로의 도약 ▲모두가 성장하는 지역혁신의 새로운 표준모델 구

축 등이 담겼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앞으로 어떤 기업도 ‘광주에 인재가 없어서 못 간다’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행정-대학-기업이 손을 맞잡고 광주를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완성하겠다”며 “사람을 키우는 것은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지역에서 일자리를 얻고, 정주하며 산업을 키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발전의 새 미래를 활짝 열겠다”고 밝혔다.

이근배 전남대학교 총장은 “전남대는 AI+X 융합교육과 글로벌 학습 환경을 확대하고 광주시의 ‘AI 수도’ 비전과 연계해 지역의 AI 기반 산업전환을 선도하겠다”며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글로벌

인재 양성과 지역 미래 설계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춘성 조선대학교 총장은 “전 생애 웨이징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길을 넓히며 글로벌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 교육·연구 협력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대는 ‘인간중심 AI 융합 인재양성 교육·연구 혁신대학’을 비전으로, AI융합 교육센터, AI융합연구원, 글로벌 공동연구소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AI융합 인재 2만 명 양성, 창업기업 200개 육성, 유학생 5000명 유치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선대는 ‘웨이징 아시아(Asia) 넘버

원(No.1) 대학’을 비전으로, 웨이징밸리 구축, 웨이징 기술융합원, 글로벌 자회사 설립 등 웨이징 특화인재 1만명 양성, 기업 유치 및 창업기업 육성 200개, 글로벌 인재양성 5000명 등을 목표로 추진한다.

광주시는 5년간 4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주형 교육, 좋은 일자리, 청년이 머무는 광주를 만들고, ‘대학-지자체 동반혁신 모델’을 완성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혁신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기동취재부

##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